

지역경제 덮친 금호타이어 화재…광주 제조업 ‘경고등’

금호타이어 2공장 절반 이상 전소…광주공장 생산라인 전면 중단
기아·GGM 등 완성차 업체 생산 차질 없지만 지역경제 위축 우려

광주 대표 3대 기업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 제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타이어 원재료인 고무의 특성상 화재 발생 이틀째인 18일 오후에야 겨우 주불이 잡힌 데다, 서쪽 공장 절반 이상이 전소돼 당분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호타이어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편의상 서쪽 공장(2공장)과 남쪽 공장(1공장) 등 2개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2공장의 상당 부분이 탄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타이어는 현장 수습이 끝날 때까지 광주공장 타이어 생산 공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소된 구역은 금호타이어의 주력 생산라인 중 하나이며, 생산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관련 업체를 포함한 제조업 생태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재가 난 광주공장은 금호타이어의 국내 생산 물량 중 58%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하루 평균 생산량 3만3000개, 연간 1600만개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차량용 타이어를 중심으로 국내외 완성차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주요 고객사에 대한 납품 지연은 물론, 수출 차질 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타이어 생산 중단과 더불어 문제는 지역경제의 연쇄 반응이다. 우선 광주공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완성차 업체나 공장 노동자에 대한 고용 불안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광주 산업계의 경영 여건이 국내외 경기 침체, 미국발 관세 전쟁, 전방산업 침체 및 외주화 확산 등으로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지역 대표 대형 제조업 공장의 장기 생산 중단까지 겹치면 추가적인 일자리 감소와 유동성 위기, 시민과 투자자의 불안감 등을 키울 수 있다는 공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번 화재로 올해 자신했던 매출 5조원 달성 목표도 버겁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 4조5381억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기록을 쓴 뒤, 올해 이를 뛰어넘는 '5조원 매출 달성' 목표를 내놓은 상태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광주 제조업 기반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 공장이 장기간 멈춰선다면,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며 “완성차·운송·정비 등 연쇄적으로 얹힌 산업군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타이어 생산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광주지역 완성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 공장을 둔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금호타이어 외에도 한국·금호·넥센타이어 등 다른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생산 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자동차 업체의 설명이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를 각각 50% 비율로 사용하는 GGM의 전기차 역시 금호타이어의 재고가 충분하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아닌 곡성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경우 협력 업체가 없는 운영 시스템이어서, 하청업체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일단 전소된 설비 복구 등에만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또 불이 완전히 진압되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생산 재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기업 복구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지역 고용 안전망 강화, 제조 시설의 화재 대응 시스템 점검 등 광주시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군공항 이전·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광주상의, 지역현안 해결 요청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16개 발굴 공약 전달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향후 국정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18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양부남(광주 서구을)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정진욱(동남갑)·조인철(서구갑)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상의는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과제 중심으로 발굴한 대선 공약집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경제계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상의는 최우선 과제로 광주민·군공항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을 제시했으며,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과 보급 확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언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신중한 접근 ▲중소기업 산재 예방 중심 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상속세·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전남은 미래차,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

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간담회에서 전달된 경제계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지역 경제계와의 긴밀한 소통은 민생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중앙당과 대선 후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상의는 앞서 지난 3일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 16개를 발굴해 정성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가인재위원장,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선 공약 반영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농식품부, 살기 좋은 농촌 조성 속도

21개 시·군과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과 협약을 맺고, 농촌 현장과 관련된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 조성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촌공간 개선에 상호협력하기 위해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등 전국 2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자체가 각 지역 농촌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농촌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매년 20여개 안팎의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21년에는 전남에서 보성군만 유일하게 포함됐지만, 2022년(화순, 나주, 장흥, 강진), 2023년(순천, 구례, 해남, 함평), 2024년(영양, 영광), 2025년(광양, 담양, 장성) 등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분부는 지난 15·16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평규 박사 초청 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급요 조찬 포럼을 열고 중국 전문가 조평규 박사를 초청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박사와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중국과의 관세 전쟁, 향후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에서 황왕, 최즈보 부총영사, 한국운남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포럼은 ▲2025년 중국 경제 방향 ▲미·중 관세 전쟁 ▲2025년 중국 자본시장 전망 ▲중소기업 중국 진출 ▲중국 대도시 진출 전략 ▲중국에서 성공

하는 핵심 전략 등의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 박사는 이날 “중국 기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없으면 차라리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위기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박사는 한중기업연합회 상임대표로 중국 연달그룹 특별고문, 장보고 글로벌재단 부이사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와 중국엔다그룹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중국을 알지 못하면 중국을 남을 수 없다’ 등 저서를 발간하는 등 중국 전문가로 평가된다.

포럼에 앞서 광주경총은 한국원남(운남)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간 경제·무역·투자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주영룡 원남기업연합회장은 “광주경총과의 업무협약은 양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

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경총, 중소기업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집중 논의

■ 로또복권 (제 117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9	24	40	42	44	4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203,004,452				13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8,705,881				98
3	5개 숫자일치	1,560,372				3,059
4	4개 숫자일치	50,000				152,897
5	3개 숫자일치	5,000				2,590,472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GFA 보험GA협회